

꿈꾸는 고래 루나와 두려움이

두려움을 안아주는 힘을 배워요





깊고 푸른 바다 속, 별무늬 작은 고래 루나가 조용히 숨쉬고 있었어요.
매일 밤, 루나는 꿈속에서 빛나는 모험을 떠나곤 했지요. '오늘은 어디로
날아갈까?'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이 파도처럼 잔잔했어요.



어느날, 루나는 깊고 어두운 바다에서 두려움을 만났어요.
작은 어두운 형체의 두려움이는 루나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루나의 마음은 찌릿찌릿, 작은 전류가 흘렀어요.



루나는 두려움을 피하려 했지만, 그럴수록 두려움이는 가까이 다가왔어요. '어쩌면 좋지?' 루나의 마음속 물방울이 조용히 툭툭 터졌어요.



그때 루나는 잠시 멈춰서 두려움을 조심스럽게 감싸고 따뜻하게 안아주기로 했어요. '안녕, 두려움이야.' 루나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두려움이는 부드럽게 빛으로 변화했어요.



두려움이는 루나의 온기에 사르르 녹아 사라졌고, 그 자리엔
밝은 빛만이 가득 찼지요. 루나는 마음 한구석에서 포근한
따뜻함이 솟아났어요. '두려움도 이렇게 친구가 될 수 있구나.'



루나는 깨달았어요. 두려움을 밀어내지 않고 안아주는 것이 진정한 힘이라는 걸. 꿈에서 깨어난 루나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밤하늘 별빛처럼 고요한 바다에서 루나는 두려움과 함께 모험을 떠났어요. 그곳에서 눈부시게 빛나는 것은 오직 루나의 마음뿐이었어요.



"잘 자, 루나야." 루나는 별들처럼 빛나며 은은한 바다 안에서
고요히 잠들었어요. 언제나, 마음에 빛나는 별이 함께였어요.



끝

따뜻한 동화책 한 권이 완성되었어요.

꿈꾸는 고래 루나와 두려움이

글·그림 올레길

© 2026 올레길 · Storypia